

# 발 간 사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제위께서는 그간 건안하십니까.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연일 그 매서움을 더해갑니다. 盛夏의 계절이 지난 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冬眠의 기간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크거나 작거나 간에 지나간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자연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지난 9월 26일자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학회 집행부를 구성하고, 그간 학회 회장의 직무를 맡아 학회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신 박수혁 교수님을 새로이 학회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그간 박 고문님께서 힘쓰신 노고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학회의 새 집행부가 출범한 후인 지난 12월 17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시청각교육원에서 제82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환경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대주제 하에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번 학술발표회에서는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학회 초대회장을 지내신 이상규 명예회장님의 기조말씀과 함께 김철용 고문님의 격려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되었던 학회 임시총회에서는 성신여대에 재직하시는 김향기 교수님이 현 학회 회칙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되는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환경법학자들의 노력과 사고 전환을 강조하신 이상규 명예회장님과 여러 법학 영역 간에는 물론 여타 학문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학회운영의 방향에 대해 귀한 말씀을 해주신 김철용 고문님, 그리고 임시총회에서 학회회무 전반에 대해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석중현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논문집은 「환경법연구」 제27권 제3호입니다. 지난 3월초 당시 학회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3권의 학회지를 발간하고자 결의된 바 있습니다만, 학회의 전통과 제반 여건에 비추어 연간 4권의 학회지를 발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학회지에는 지난 3월과 8월에 있었던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들과 회원님들의 옥고들을 묶어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간 다수의 회원님들이 기고해주신 많은 논문들은 현재 진행 중인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가 종료 되는대로 「환경법연구」 제27권 제4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한국환경법학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쏟아주시는 회원제위와 학회의 제반 일에 솔선수범해주시는 학회 집행부임원들, 그리고 특히 이번 학회지 발간을 위해 무한히 애써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이희정 출판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학회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5년 12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 해 룡